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by the Types of Economic Instability in the Urban Households

전주기전여자대학 소비자정보과
조교수 홍향숙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이기춘

Dept. of Consumer and information studies, Chonju Kijeon Women's College

Assistant Prof. : Hong, Hyang Sook

Dept. of Consumer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 : Rhee, Kee Choon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분석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Households have experienced economic instability since Korea economic crisis in 1997.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by the types of economic instability classified considering the two aspects of the employment and the income instability of the households.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 1) to classify households' economic instability in terms of employment and income instability. 2) to examine whether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is different between households experiencing the different types of the economic instability.

The sample consisted of 792 married women living in Seoul.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analysis included Reliability, Frequencies, Percent, Mean, Standard Deviation, Analysis of Covariance, one-way Anova, DMR-test.

The major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 1) The economic instability experienced by households can be classified into the 4 types : employment-income instability, employment instability · income stability, employment stability · income instability, and employment · income stability. 2)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between households having the different types of economic inst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needed for development of the employment policies and the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I. 문제제기

경제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성공적인 삶은 자원의 양과 질을 많이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가계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하나의 경제체제로서 가계의 경제활동은 가족원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가족원이 가치를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이 중요하다. 특히 경기침체기에는 실업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가계의 경제적 자원의 제약이 보다 심해져 가계의 경제상황이 불안정하게 되므로 이 경우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이 더욱 중요시 된다.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산업전반의 경기, 노동시장의 안정성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최근 10여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불확실성 속에 휩싸여 있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 실업자수의 급증과 더불어 명목임금 상승률은 0.1% 상승에 그쳐 사실상 명목임금이 거의 동결된 상태이며,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동연구원, 1998).

이에 개별가계는 주소득 획득자인 가장의 실적 또는 실직가능성과 임금감소 또는 소득단절 가능성으로 인해 앞으로 가계의 경제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가계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가족원들이 원하는 생활양식을 달성하기 위해 가계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재무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재무관리행동을 행해야 한다. 가계는 이와 같은 재무관리행동을 통해 가계의 현재와 미래의 소득과 자산을 보전하고 증식시켜 가계의 소득과 부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소비를 실천하며, 재무적 안정감을 달성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가계에 있어 가계소득의 주요 원천 중의 하나가 주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이

는 고용을 통해서 창출되므로 가계 주소득자의 고용상태 또한 재무관리행동에 있어 중요요소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별 가계의 고용 및 소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은 매우 추상적이지만 분명히 현재의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별 가계가 느끼는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가계가 대처가능한 수준의 고용과 소득 불안정성일 경우 가계는 이러한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계의 지출관리, 부채관리, 투자관리, 위험관리와 관련된 행동을 보다 계획적, 체계적으로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계의 고용과 소득 불안정성이 클 경우는 가계 재무자원의 제약이 심각하여 경제적 불안정성을 극복하려고 하기 보다 오히려 무계획적, 비관리적으로 되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가계의 경제구조에서 중요한 두 차원인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가계의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재무관리행동의 특정 영역만을 기술적으로 다루었거나(범수인, 1992; 안수미, 1998; 이선형, 1995; 주인숙, 1995 등) 재정문제를 살펴본 연구들(박선옥, 1997; 정선희, 1987)이므로 가계의 경제구조에 중요한 두 차원인 고용과 소득에 근거해 가계의 유형을 구분하여 재무관리행동을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계의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에 근거해 가계를 유형화하여 가계의 유형별로 재무관리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별 재무관리행동의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마련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일반적으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란 경제상황의 주요 지표인 고용, 임금, 물가 등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의 역할과 영향을 계량화하기 위해 불확실성의 변화수준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실업률 등을 변수로 사용(최영일, 1990)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고용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은 고용이 불안정하여 실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며, 임금이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은 임금이 언제, 얼마만큼 삭감될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경제침체에 있어 고용, 임금, 물가의 불확실성은 개별 가계 고용 및 소득불안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기침체에 있어서는,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감소 효과보다는 고용이나 임금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소득단절이나 소득감소가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지원한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하에서 기업을 포함한 사회전반에서 구조조정이 실시되어 실업자수가 급증하고, 임금상승률이 둔화되거나 감소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고용불안정성과 임금불안정성이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날과 같은 경제상황하의 불확실성 중에서 고용과 임금이 있어서 불확실성은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된다.

2. 재무관리행동의 개념 및 영역

1) 재무관리행동의 개념

박명희 등(1997)은 재무관리란 장기 재정안정을 위해 현재 개인의 경제적 자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

한 매일의 재정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홍향숙(1997a)은 재무관리를 가계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가계의 현재와 미래의 소득과 자산을 보전하고 증진시켜 가계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많은 학자들은 가계의 재무목표와 재무관리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의 재무상태와 그들의 재무목표 사이의 격차가 복지 지각에 영향을 주어서 재무관리행동을 유도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체계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가계의 재무관리를 분석한 Titus 등(1989)은 재무관리와 관련된 실제적인 활동 즉 예산수립, 가계부 기록 등을 재무관리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이기춘 등(1998)은 가계가 기대하는 생활양식을 달성하며, 생애소비만족을 극대화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재무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무설계를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 자산, 재무자원을 증대시키고 보전하여 개인과 가계가 기대하는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목표를 달성해가는 전생애에 걸친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기춘 등(1998)의 연구를 참고하여 재무관리행동이란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자산을 증대시키고 보전하여 가계가 기대하는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목표를 달성해 가는 전생애에 걸친 과정, 즉 재무목표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무목표를 설정하며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며, 점검,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이라 정의한다.

2) 재무관리행동의 영역

이기춘 등(1998)은 재무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생애 걸친 재무설계, 수입과 지출의 관리, 소득과 자산의 보호, 자산의 증대, 노후설계와 상속을 재무관리의 주요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수입과 지출관리에는 자금관리, 차용관리, 세금관리, 지출관리를 포함시켰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계 재무목표로는 전생애에 걸쳐서 소득과 부의 극대화, 효율적인 소비의 실현, 재무생활 만족의 발견, 재무적 안전감의 달성 등이

있다. 가계소득과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극대화가 필요하므로 소득관리가 요구되며,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의 선택이 중요하므로 가계의 투자행동이 중요해진다. 또한 가계소득의 많은 부분은 소비지출에 사용되므로 효율적인 소비지출이 중요하다.

한편 소득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초년기, 노년기에는 낮은 반면 중·장년기에는 높으므로 초년기에는 차입을, 그리고 중·장년기에는 초년기에 빌렸던 부채의 상환과 노년기에 대비한 저축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계는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수준을 안정화하여 충효율을 극대화한다고 볼때 가계는 부채의 차입과 상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부채관리 또한 재무관리에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재무적 안전감을 가지기 위해 가계는 실업, 화재, 교통사고 등의 재무자원의 손실을 가져오거나 재무자원의 필요를 증대시키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관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무관리행동의 하위영역을 소득관리행동, 세금관리행동, 지출관리행동, 부채관리행동, 투자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1) 소득관리행동

가계의 바람직한 소득상태는 안정과 여유에 있다. 소득의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천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계가 받는 경제적 타격을 비교적 적게 하기 위하여 소득의 원천을 다양화하는 방법으로는 근로소득이 주소득원이 되고 있는 가정에서는 부업을 구하거나 가구주의 소득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가족구성원도 직업을 갖도록 한다(이기춘, 1991). 다음으로 소득의 여유분을 저축하여 재산화해서 근로소득에 부가해서 재산소득을 얻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2) 세금관리행동

세금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액의 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가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의 징수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액을 감소시키므로 가계의 소비지출과 저축을 감소시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세

금이 소비지출과 저축을 감소시키는 정도는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조세가 증가하면 고소득층의 경우 증가된 조세를 주로 저축에서 부담하게 되어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되어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비자금에서 지출하게 되므로 조세의 증가가 가계생활수준의 저하와 직결될 수 있다(김혜선·배미경, 1998).

따라서 가계는 부당한 세금을 무는 일을 줄이고 절세혜택을 높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세금관리행동을 필요로 한다.

(3) 지출관리행동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또다른 방법은 현명하게 지출하는 것이다. 만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 적자 가계가 되어 부채를 갖게 되며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등 가정경제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소비지출은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위해 지출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이기춘 등, 1998). 첫째, 필요와 요구는 지출예산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구분해야 한다. 셋째, 지출비목간에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4) 투자관리행동

가계의 재무관리 중에서 투자는 재무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계가 투자행동을 함에 있어서 투자대상의 선택, 안전성과 수익성의 동시적 고려, 투자대상의 매입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결정은 가계투자행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투자관리란 투자자산의 선택에서 관리, 투자성과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투자할 수 있는지, 수익률은 얼마나 되며, 어떠한 위험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는 가계의 소득과 투자기록에 관한 회계, 투자를 위한 기본 용어들, 그리고 투자에 관련된 지식 등 투자에 관한 기초지식과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안수미, 1998).

(5) 부채관리행동

소비에 대한 기간간 선택이론에 의하면 가계는 부채를 이용하여 일생에 걸쳐 가계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소비의 총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Herendeen, 1974). 실제로 부채의 이용은 가계의 현재 구매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가계 생활표준으로의 접근을 더 용이케 하는 동시에 생활주기상의 어느 단계에서 또는 가계소득의 감소나 실업 등과 같은 특정 상황하의 경제적 곤궁에서 일정 수준의 생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계소비의 총효용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부채는 일종의 고정지출 항목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질 수 있으며 소비패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가계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심영, 1993). 이에 부채문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상담가들은 가계는 지불능력 한도내에서 부채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Hira(1990)는 구체적으로 월소득 중 부채상환에 이용되는 금액의 비율이 20%를 넘는 경우 가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인바 있다.

따라서 가계의 부채이용은 부채의 이용목적과 그 관리방법에 따라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

(6) 위험관리행동

인간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 질병, 실업, 화재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관리는 가계 재무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가계가 위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계에 닥칠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다음으로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의 잠재적 손실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손실의 크기뿐 아니라 가능한 위험의 빈도와 위험의 상대적인 심각성도 추정해 보아야 한다. 세번째는 위험관리 방법을 선택

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평가와 조정을 해야 한다. 가계가 처한 환경이 변화하면 위험의 내용과 발생가능성도 변화한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위험관리 방법도 재고되어야 한다(이기춘 등, 1998).

3. 경제적 불안정성하에서의 재무관리행동

가계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향상되거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경제적 안정이라고 할 때, 가계의 내·외의 사건과 자극에 의하여 경제적 안정이 위협당한 상태를 경제적 불안정이라고 한다(황덕순, 1995).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실업, 특히 가장의 실업과 인플레이션, 소득의 부족 등이다. 특히 경기침체기에는 실업이 늘면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므로 가계의 고용불안정성과 소득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성은 가계의 자원제약을 심화시키므로 가계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재무관리행동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가계는 장래에 소득이 감소하게 되리라고 판단한다면 미래의 적정수준의 소비지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축의 증대를 통하여 현금잔고를 증가시킬 것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소비지출을 증대시킬 것이다. 실업이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면, 만약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실업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므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도 현재 실업률의 상승으로 인해 야기되는 장래의 불안감 때문에 보다 많은 양의 예비적 저축을 위하여 보다 많이 저축할 것이므로 실업은 현재의 소비지출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최영일, 1990).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을 기준으로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1-1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수준은 어떠한가?

1-2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1-3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별 재무 관리행동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1 재무관리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어떠한가?

2-2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영역별 재무관리행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3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문항별 재무관리행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도구는 여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구성된 질문지의 내용에 대한 타당도는 소비자학 전공자들로부터 검증을 받았으며, 각 척도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3. 자료의 수집과 분석

실증적 자료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이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공시지가에 대한 연차보고서'와 '부동산뱅크'의 아파트 시세표를 참고하여 다단계 층화집락 표집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는 1998년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총 1062부를 배포하여 942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총 79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다중범위검증(DMR-test) 등을 적용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첫째, 연령¹⁾을 보면 전체 평균 연령이 40.41세이며, 30대가 43.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대로 30.6%를 차지하여 30대와 40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대는 12.9%를 차지하고 있고, 50대 이상은 13.1%를 차지하였다.

둘째, 남편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이 45.5%로 가장 많고, 대졸이상은 44.8%, 중졸이하는 9.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도시가계연보(1997)의 근로자 가계와 비교해 볼 때 대졸이상자가 상당히 많이 표집되었으며 중졸이하자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편직업을 보면 관리직에 종사하는 가계가 36.2%로 가장 많고, 판매서비스직이 22.2%, 전문직이 14.9%, 생산직이 13.4%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월평균 가계소득을 보면 먼저 전체 평균이 303만원이며, 150-25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계가 3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50-35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계로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번째로 많은 집단은 350-45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계인데 15.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45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계는 17.4%이며, 150만원미만인 저소득 가계는 12.5%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가계연보(1997)의 근로자 가계와 비교해볼 때 155만원미만인 저소득가계가 보다 적게, 350만원이상인 고소득 가계는 보다 많이 표집되어 도시근로자 가계의 월평균가계소득보다 평균금액이 75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주택소유형태를 보면 자택이 70.8%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는 26.3%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가계연보(1997)의 근로자가계와 비교해 볼 때 전세,

1) 본 연구에서 남편연령에 대한 대리변수로 부인의 연령을 사용하였음.

〈표 1〉 조사도구의 구성

변수유형	척도내용	척도형식	문항수	점수범위	신뢰도
재무관리행동	소득관리행동 1) 소득증가를 위한 정보수집 2) 가계소득 원천 다양화 계획수립 3) 재산소득을 가지기 위해 노력 4) 업무관련 기능 습득정도 점검 5) 소득의 적절성 평가	5점 리커트	5	5-25	.76
	세금관리행동 1) 절세관련 정보수집 2) 연간 세금납부 계획수립 3) 세금납부 기일 지키기 4) 세금부과 내역 및 연체여부 확인 5) 절세방법 이용의 평가	5점 리커트	5	5-25	.75
	지출관리행동 1) 지출관련 정보수집 2) 매월 고정지출액과 변동지출액의 계산 3) 지출내용 및 지출액수의 기록 4) 변동지출의 사용 점검 5) 지출내용 결산 및 평가	5점 리커트	5	5-25	.69
	투자관리행동 1) 투자를 위한 정보수집 2) 투자목표의 설정 3) 투자방법 및 투자기간에 대한 계획수립 4) 이자율을 고려한 금융상품의 선택 5) 투자방법의 적절성 평가	5점 리커트	5	5-25	.68
	부채관리행동 1) 부채이용을 위한 정보수집 2) 월 신용카드 부채액 관리 3) 월부채상환의 확인 4) 대출자격 요건의 구비여부 확인 5) 1년 단위로 부채상환 결과 평가	5점 리커트	5	5-25	.76
	위험관리행동 1) 보험선택을 위한 정보수집 2) 위험대비책 마련을 주요 목표로 설정 3) 보험가입 4) 월보험료 납입 확인 5) 가입한 보험의 적절성 평가	5점 리커트	5	5-25	.81
고용 불안정성	1) 지난 2년간 정리해고 횟수 2) 현재직업의 지속가능성	5점 리커트	2	2-10	.56
소득 불안정성	1) 소득 유입시기의 일정성 2) 매달 소득액의 일정성 3) 2-5년후 소득유입시기의 일정성 4) 2-5년후 소득액의 일정성	3점 리커트	4	4-12	.83
일반적 특성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월평균가계소득, 주택소유여부, 총부채액				

월세에 사는 가계는 상당히 적었으며, 자택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가계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보면 1억원 미만인 가계가 29.9%를 차지하고 있

으며, 1-2억 미만인 가계는 26.8%를 차지하고 있어 조사대상자의 절반이상이 2억원 미만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22,782만원이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연령	20대	102(12.9)
	30대	344(43.4)
	40대	242(30.6)
	50대이상	104(13.1)
	계	792(100.0)
교육수준	중졸이하	77(9.7)
	고졸	360(45.5)
	대졸이상	336(44.8)
계	792(100.0)	
주택소유 형태	월세·무상	23(2.9)
	전세	208(26.3)
	자택	561(70.8)
	계	792(100.0)
가계소득	150만원미만	99(12.5)
	150-250만원미만	264(33.3)
	250-350만원미만	171(21.6)
	350-450만원미만	120(15.2)
	450만원이상	138(17.4)
계	792(100.0)	
평균	303,128(만원)	
순자산	1억원 미만	237(29.9)
	1-2억 미만	212(26.8)
	2-3억 미만	134(16.9)
	3-5억 미만	127(16.0)
	5억원 이상	82(10.4)
	계	792(100.0)
평균	22782.66(만원)	
남편직업	전문직	118(14.9)
	관리직	287(36.2)
	사무직	60(7.6)
	계	792(100.0)
총부채액	없음	365(46.1)
	1천만원 미만	121(15.3)
	1천-2천만원 미만	108(13.6)
	2천-3천만원 미만	73(9.2)
	3천-4천만원 미만	38(4.8)
	4천만원 이상	87(11.0)
계	792(100.0)	
평균	1224.71(만원)	

일곱번째, 가계부채소유 정도를 보면 부채가 없는 가계가 46.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채가 있는 가계는 53.9%로 나타났다. 가계의 총부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가계가 15.3%이며, 그 다음이 1천-2천만원 미만인 가계로 1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천만원이상인 가계도 1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총부채액의 전체 평균은 1,224만원이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분류

1)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의 수준

(1) 고용불안정성의 수준

고용불안정성은 가장의 지난 2년 동안 실직경험 및 현재 직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실직경험이 많을수록, 현재 직업의 지속가능성이 적다고 응답할수록 가계의 고용불안정성 수준은 증가한다.

우선 지난 2년간 가장의 실직경험을 보면 한번 이상 실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9.8%인 것으로 나타나(〈표 3〉 참조)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

〈표 3〉 고용불안정성의 수준

문항	구분	빈도(%)
2년간 실직경험	없음	635(80.2)
	한번	116(14.6)
	두번	7(0.9)
	세번	5(0.6)
	여러번	29(3.7)
	평균	1.33
표준편차	.85	
현재직업 지속가능성	정년퇴직때 까지 앞으로 10년	301(38.0)
	1-3년	202(25.5)
	당장 그만둘지 모름	106(13.4)
	현재 실직상태	121(15.3)
	현재 실직상태	62(7.8)
평균	2.29	
표준편차	1.32	

〈표 4〉 소득불안정성의 일반적 수준

	점수	빈도(%)	평균(표준편차)
소득 불안정성 (4문항)	4-6 7-9 10-12	284(35.8) 299(37.8) 209(26.4)	7.69(2.43)

용 체제로 인한 실업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의 현재 직업의 지속가능성을 보면 현재 실직상태인 가계가 7.8%이며, 당장 그만 두게 될지도 모른다고 응답한 가계가 15.3%이며, 1-3년 안에 그만 둘것 같다가 13.4%로 나타나 실직이거나 현재 직업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가계가 36.5%나 됨으로써 가계의 고용불안정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소득불안정성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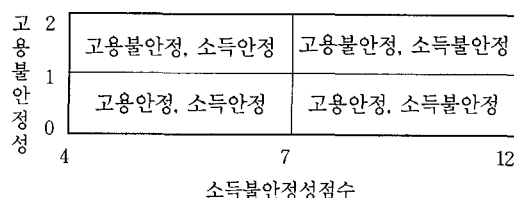
소득불안정성은 매달 가계소득의 유입시기와 소득액의 일정성, 2-5년후 가계소득의 유입시기와 소득액의 일정성 등 4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가계의 소득 불안정성의 일반적 경향을 보기 위해 평균과 범위를 살펴보았다(〈표 4〉 참조).

분석결과 가계의 소득 불안정성의 평균점수는 7.69이며, 점수의 범위는 4-12점까지의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 7.69를 3점 척도상의 점수로 환산하면 1.92로서 이 점수는 가계의 소득불안정 수준이 중간 정도임을 나타낸다.

2)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의 유형화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의 두 차원이 되는 고용불안정성, 소득불안정성 두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네 가지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고용불안정성과 소득불안정성 두 차원을 가지고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유형화하기 위해 소득불안정성은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고용불안정성은 척도를 다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는 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불안정성은 가장의 실직경험과 현재 직업의 지속가능성을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실직경



〈그림 1〉 고용불안정성과 소득불안정성의 점수 분포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분류

험의 경우 '없다'에 0점, 1번 이상이면 1점을 주었으며, 현재 직업의 지속가능성의 경우 '앞으로 10년, 정년퇴직때까지 가능하다'에 0점을, '현재 실직상태'와 '3년 이내에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에 1점을 주었다. 따라서 고용불안정성의 점수가 0점인 경우 즉 실직경험도 없고 현재 직업의 지속가능성이 10년 이상일때 고용안정 집단, 1-2점인 경우 즉 실직경험이 있거나, 현재 직업의 지속가능성이 3년 이내인 경우 또는 둘다 일때는 고용불안정 집단에 포함되었다.

유형화된 네 개 집단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앞서 선정된 네 개의 집단이 고용불안정성과 소득불안정성 점수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별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과 던컨의 다중범위검증(DMR-test)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공분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용불안정성과 소득불안정성 두 개의 차원 모두 각각의 상대 변수를 통제하고도 p<.001수준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소득불안정성 점수는 고용불안정·소득불안정 유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고용안정·소득불안정 유형, 고용불안정·소득안정 유형, 고용안정·소득안정 유형의 순으로 낮아진다. 고용불안정성의 점수는 고용불안정·소득불안정 유형이 가장 높고, 고용불안정·소득안정 유형, 고용안정·소득안정 유형의 순으로 낮아진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때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별로 고용불안정성과 소득불안정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별 고용불안정성과 소득불안정성의 평균점수와 일원공분산분석

차원	유형	고용불안정 소득불안정 N=218	고용불안정 소득안정 N=115	고용안정 소득불안정 N=169	고용안정 소득안정 N=290	F값
소득불안정성	a	9.86 a	5.95 b	9.64 a	5.60 c	468.720***
고용불안정성	b	1.43 a	1.17 b	.00 c	.00 c	1006.509***

a: 통제변수는 고용불안정성 b: 통제변수는 소득불안정성

***p < .001

〈표 6〉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전체표본 평균(%) (N=792)	고용불안정 소득불안정 (N=218)	고용불안정 소득안정 (N=115)	고용안정 소득불안정 (N=169)	고용안정 소득안정 (N=290)	F값/χ²값
가계소득(만원)		303.13	232.60 b	308.83 a	327.65 a	339.60 a	15.131***
연령		40.41	41.79 a	40.77 a	40.16 b	38.93 b	6.071***
자산(만원)		22782.66	17882.48 b	21714.78 b	26408.46 a	24776.74 a	3.761*
부채(만원)		1224.71	1313.18 a	803.47 b	1504.21 a	1162.36 a	2.977*
남편의 교육수준 (교육년수)		14.71	13.60 b	15.16 a	14.04 b	15.76 a	48.852***
직업 지위	전문·관리직	405(51.1)	58(26.6)	65(56.6)	63(37.3)	220(75.9)	231.752***
	사무직	60(7.6)	13(6.0)	16(13.9)	8(4.7)	23(7.9)	
	판매·서비스직	176(22.2)	63(28.9)	16(13.9)	72(42.6)	25(8.6)	
	생산직	106(13.4)	47(21.6)	11(9.6)	26(15.4)	22(7.6)	
	무직	45(5.7)	37(17.0)	7(6.1)	0(0.0)	0(0.0)	
주거 유형	월세	23(2.9)	14(6.4)	2(1.7)	4(2.4)	3(1.0)	23.775***
	전세	208(26.3)	72(33.0)	30(26.1)	40(23.7)	66(22.8)	
	자 가	561(70.8)	132(60.6)	83(72.2)	125(74.0)	221(76.2)	

*p < .05 ***p < .001

3)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고용불안정성과 소득불안정성에 기초해서 가계를 유형화한 결과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는 네 집단으로 유형화됨을 보았다. 이에 각 유형별로 어떠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이 각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 참조).

우선 평균 가계소득에 있어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고용안정·소득안정 가계의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았으나 고용불안정·소득안정 가계

와 고용안정·소득불안정 가계와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불안정·소득불안정 가계의 월평균소득이 나머지 가계들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안정성 유형별로 볼때 가장의 고용이 불안정하며 소득도 불안정한 가계일수록 가계소득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번째로 부인의 평균연령에서 유형별 차이를 보면 고용이 안정된 가계의 부인연령이 고용이 불안정한 가계의 부인연령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인의 연령과 남편의 연령과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과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의 구조조정에서 남편의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세번째로 자산에서의 유형별 차이를 보면, 고용안정·소득안정 유형의 가계와 고용안정·소득불안정 가계는 자산이 많으며, 고용불안정·소득불안정 가계와 고용불안정·소득안정 가계는 자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용이 안정된 가계가 자산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로 부채에서의 유형별 차이를 비교해보면 고용불안정·소득안정 유형에 속한 가계의 경우 나머지 세 유형에 속한 가계들보다 부채가 유의하게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남편의 교육수준에 있어서 유형별 차이를 보면, 소득이 안정된 유형에 속한 가계의 남편 교육수준이 소득이 불안정한 유형에 속한 가계의 교육수준 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남편의 직업에 있어 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적인 직업비율 분포와 비교해서 보면, 각 유형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안정·소득안정 유형에는 전체적인 직업비율에 비해 전문관리직의 분포비율이 크게 높으며, 고용안정·소득불안정 유형에는 판매서비스직의 분포비율이 크게 높았으며, 고용불안정·소득불안정 유형은 생산직, 무직의 분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택소유 형태에 있어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적인 주택소유 형태분포와 비교해 보면, 각 유형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별 재무관리행동

1) 재무관리행동의 일반적 경향

재무영역별 재무관리행동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위험관리행동의 평균점수가 19.28점으로 가장 높으며, 이를 5점 척도상의 점수로 환산하면 3.86점인데, 이 점수는 많은 가계들이 위험관리행동에 있어서 '대체로 그렇다'는 4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채관리행동, 소득관리행동,

〈표 7〉 재무관리행동의 일반적 경향

영역	평균(표준편차)	5점척도상	범위
소득관리행동	17.96(3.23)	3.59	5-25
세금관리행동	19.11(3.14)	3.82	
지출관리행동	17.09(3.74)	3.42	
투자관리행동	16.48(3.98)	3.30	
부채관리행동	19.18(3.85)	3.84	
위험관리행동	19.28(3.73)	3.86	

지출관리행동 순이었으며, 투자관리행동은 16.48점으로 가장 낮았다.

2)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영역별 재무관리행동

고용불안정성과 소득불안정성에 근거해 구분된 네가지 유형별로 재무영역에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참조). 분석결과 세금관리행동, 지출관리행동을 제외한 소득관리행동, 투자관리행동, 부채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우선 소득관리행동은 고용불안정·소득불안정 유형에 속한 가계들이 다른 유형에 속한 가계들보다 이와 관련된 행동을 유의하게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금관리행동은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가계에서 이와 관련된 행동을 대체로 잘하고 있어,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지출관리행동은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가계에서 이와 관련된 행동을 덜하고 있어,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투자관리행동의 경우 소득이 안정적인 유형에 속한 가계들이 이와 관련된 행동을 가장 잘하고 있으며, 다음은 소득은 불안정하나 고용이 안정적인 가계이며, 특히 고용과 소득 둘다 불안정한 가계들은 투자와 관련된 행동을 가장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별 재무관리행동

	고용불안정 소득불안정 N=218	고용불안정 소득안정 N=115	고용안정 소득불안정 N=169	고용안정 소득안정 N=290	F값
	평균 (표준편차) 5점척도상	평균 (표준편차) 5점척도상	평균 (표준편차) 5점척도상	평균 (표준편차) 5점척도상	
소득관리행동	17.20 b (3.69) 3.44	18.56 a (2.97) 3.71	18.04a (3.03) 3.61	18.03 a (3.23) 3.61	5.103**
세금관리행동	18.69 (3.49) 3.74	19.34 (2.98) 3.87	19.18 (3.01) 3.84	19.21 (3.06) 3.84	1.596
지출관리행동	16.69 (3.95) 3.34	17.40 (3.65) 3.48	16.93 (3.65) 3.39	17.34 (3.71) 3.47	1.608
투자관리행동	14.90 c (4.63) 2.98	17.49 a (3.66) 3.50	16.60 b (3.62) 3.32	16.94 a (4.00) 3.39	12.581***
부채관리행동	18.33 b (4.36) 3.67	19.63 a (3.78) 3.93	19.24 a (3.79) 3.85	19.52 a (3.47) 3.90	4.797**
위험관리행동	18.67 b (3.88) 3.73	19.16 b (3.96) 3.83	19.52 a (3.78) 3.90	19.76 a (3.31) 3.95	3.918**

p < .01 *p < .001

다섯째, 부채관리행동도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용불안정·소득불안정 유형에 속한 가계들이 나머지 유형에 속한 가계들 보다 부채관리와 관련된 행동을 유의하게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위험관리행동은 고용이 안정된 유형에 속한 가계들이 고용이 불안정한 유형에 속한 가계들 보다 위험관리와 관련된 행동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문항별 재무관리행동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영역별 재무관리행동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네가지 유형에 있어서 개별 문항의 재무관리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별 소득관리행동을 문항별로 볼 때 '소득증가를 위한 정보수집' '업무관련 기능의 습득정도 점검' '소득의 적절성 평가' 행동에 있어서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소득증가를 위한 정보수집'은 소득이 불안정한 유형에 속한 가계들이 소득이 안정적인 유형에 속한 가계들보다 이와 관련된 행동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관련 기능의 습득정도 점검' 행동은 고용과 소득이 안정된 가계들이 다른 가계들보다 이와 관련된 행동을 유의하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과 소득 둘 다 안정된 가계에서는 다른 가계들보다 가계의 주요 소득자가 직장에서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자격증, 컴퓨터사용 등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능을 제때에 익히고 있

〈표 9〉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별 소득관리행동의 문항분석

	전체 표본 N=792	고용불안정 소득불안정 N=218	고용불안정 소득안정 N=115	고용안정 소득불안정 N=169	고용안정 소득안정 N=290	F값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소득증가를 위한 정보수집	3.42	3.28 b	3.69 a	3.38 b	3.43 a	3.336*
소득원천 다양화 계획수립	3.43	3.31	3.57	3.52	3.41	1.987
재산소득을 가지기 위해 노력	3.72	3.67	3.86	3.78	3.68	1.260
업무관련 기능 습득정도 점검	3.33	3.10 b	3.39 b	3.36 b	3.47 a	6.024***
소득의 적절성 평가	3.98	3.84 b	4.06 b	4.00 a	4.13 a	3.571*

*p < .05 ***p < .001

〈표 10〉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별 세금관리행동의 문항분석

	전체 표본 N=792	고용불안정 소득불안정 N=218	고용불안정 소득안정 N=115	고용안정 소득불안정 N=169	고용안정 소득안정 N=290	F값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절세정보수집	3.38	3.29	3.56	3.43	3.34	1.847
세금납부 계획수립	3.43	3.49	3.34	3.46	3.41	.523
세금납부 기일 지키기	4.50	4.38 b	4.63 a	4.46 b	4.58 a	4.561**
세금내역·연체여부의 확인	4.20	4.07 b	4.23 b	4.20 b	4.30 a	3.000*
절세방법 이용 평가	3.57	3.47	3.58	3.64	3.59	1.186

*p < .05 **p < .01

는지 더 자주 확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계소득의 적절성 평가'는 가장의 고용이 불안정한 가계들이 가장의 고용이 안정된 가계보다 이와 관련된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둘째, 세금관리행동을 문항별로 볼때 '세금납부 기일 지키기'와 '세금내역 및 연체여부의 확인' 행동은 전체 가계들이 잘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세금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세관련 정보수집은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세금관리행동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세금납부 기일 지키기'와 '세금내역 및 연체여부의 확인' 행동에 있어서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세금납부 기일 지키기'의 경우 소득이 불안정한 유형에 속한 가계들이 소득이 안정된 유형에 속한 가계들보다 이와 관련된 행동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금내역 및 연체여부의 확인'의 경우는 고

용안정·소득안정 유형에 속한 가계가 다른 유형의 가계들보다 이와 관련된 행동을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셋째, 지출관리행동의 경우 '생활비를 고정지출에 우선 배분'하는 행동은 전체 가계들이 대체로 잘하고 있으나 '지출내용의 기록' '예산의 분석' '매월 지출내용의 결산 및 평가'는 덜하고 있었다.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별로 볼때 '지출관련 정보수집'과 '생활비를 고정지출에 우선 배분' 행동에 있어서 유형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지출관련 정보수집'의 경우 고용불안정·소득불안정 유형에 속한 가계들이 다른 유형에 속한 가계들에 비해 이와 관련된 행동을 의미있게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를 고정지출에 우선 배분'하는 행동은 소득이 불안정한 유형의 가계들이 소득이 안정된 유형의 가계들에 비해 이와 관련된 행동을 유의하

〈표 11〉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별 지출관리행동의 문항분석

	전체 표본 N=792	고용불안정 소득불안정 N=218	고용불안정 소득안정 N=115	고용안정 소득불안정 N=169	고용안정 소득안정 N=290	F값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지출관련 정보수집	3.66	3.40 b	3.70 a	3.70 a	3.75 a	2.619*
고정지출에 우선 배분	4.03	3.90 b	4.10 a	3.96 b	4.16 a	2.595*
지출내용 및 지출액 기록	3.28	3.28	3.36	3.15	3.34	.879
비목별 예산의 적절성 분석	3.12	3.02	3.18	3.13	3.16	.987
매월 지출내용 결산 및 평가	2.97	2.94	3.07	2.99	2.93	.548

*p < .05

〈표 12〉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별 투자관리행동의 문항분석

	전체 표본 N=792	고용불안정 소득불안정 N=218	고용불안정 소득안정 N=115	고용안정 소득불안정 N=169	고용안정 소득안정 N=290	F값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투자관련 정보수집	3.02	2.83 b	3.27 a	3.01 b	3.06 b	3.752*
투자방법에 대한 계획	3.47	3.20 b	3.63 a	3.56 a	3.56 a	7.078***
투자(저축)금액 우선 확보	3.80	3.48 b	4.00 a	3.83 a	3.96 a	9.558***
금리고려한 금융상품선택	3.20	2.81 c	3.56 a	3.17 ab	3.37 a	13.394***
투자방법의 적절성 평가	2.94	2.72 b	3.03 a	3.03 a	3.01 a	3.827**

*p < .05 **p < .01 ***p < .001

게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넷째, 투자관리행동을 문항별로 볼때 '가계소득에서 투자(저축)금액의 우선 확보' 행동은 잘하고 있으나 '투자를 위한 정보수집' '투자방법의 평가'와 관련된 행동은 덜하였다.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투자관리행동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5 문항 모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투자관련 정보수집'과 관련된 행동은 고용불안정·소득안정 유형에 속한 가계들이 다른 유형의 가계들보다 이와 관련된 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방법 및 투자기간에 대한 계획' '가계소득에서 투자(저축)금액의 우선 확보' '금리를 고려한 장단기 금융상품 선택' '투자방법의 적절성 평가'와 관련된 행동은 고용불안정·소득불안정 유형의 가계들이 나머지 유형의 가계들보다 유의하게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다섯째, 부채관리행동을 문항별로 볼때 전체 가계들이 대체로 잘하고 있으며, 특히 '매월 부채상환액의 확인' 행동을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에 따른 부채관리행동을 문항별로 보면 '대출시 필요한 자격요건 구비' 행동은 소득이 안정적인 유형에 속한 가계들이 소득이 불안정한 유형에 속한 가계들보다 이와 관련된 행동을 덜했다. '부채존재시 매월 부채상환액 확인' 행동은 고용안정·소득안정 유형에 속한 가계들이 다른 유형의 가계들에 비해 이와 관련된 행동을 더 잘하고 있었다. '부채존재시 1년 단위로 부채상환 결과 평가' 행동은 소득이 안정적인 유형에 속한 가계들이 소득이 불안정한 유형에 속한 가계들에 비해 이와 관련된 행동을 가장 잘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고용안정·소득불안정 유형에 속한 가계이며, 고용불안정·소득불안정 유형에 속한 가계는 이와 관련된 행동 수준이 가장 낮

〈표 13〉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별 부채관리행동의 문항분석

	전체 표본 N=792	고용불안정 소득불안정 N=218	고용불안정 소득안정 N=115	고용안정 소득불안정 N=169	고용안정 소득안정 N=290	F값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대출관련 정보수집	3.54	3.50	3.57	3.59	3.53	.164
월할부액이 생활비의 10%이내	3.72	3.57	3.84	3.85	3.72	2.412
대출시 필요한 자격 요건구비	3.91	3.76 b	4.06 a	3.83 b	4.00 a	2.420*
매월 부채상환액 확인	4.23	4.04 b	4.25 b	4.27 b	4.34 a	4.832**
부채상환 결과 평가	3.75	3.46 c	3.90 a	3.71 b	3.93 a	9.240***

*p < .05 **p < .01 ***p < .001

〈표 14〉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별 위험관리행동의 문항분석

	전체 표본 N=792	고용불안정 소득불안정 N=218	고용불안정 소득안정 N=115	고용안정 소득불안정 N=169	고용안정 소득안정 N=290	F값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보험관련 정보수집	3.69	3.63	3.61	3.70	3.76	.737
위험대비 계획수립	3.44	3.49 a	3.10 b	3.53 a	3.46 a	2.568*
보험에 가입	4.18	3.87 b	4.36 a	4.19 a	4.33 a	9.806***
보험료 납입 확인	4.32	4.12 b	4.33 b	4.40 a	4.43 a	4.607**
가입한 보험의 적절성 평가	3.68	3.55	3.67	3.70	3.77	2.017

*p < .05 **p < .01 ***p < .001

게 나타났다(〈표 13〉 참조).

여섯째, 위험관리행동을 문항별로 보면, 전체 가계들이 대체로 잘하고 있으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하는 것과 '보험료납입 확인' 행동을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 위험관리행동을 살펴보면 '위험대비 계획수립' 행동은 고용불안정·소득안정 유형에 속한 가계들이 나머지 유형의 가계들보다 이와 관련된 행동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은 고용불안정·소득불안정 유형의 가계들이 나머지 유형의 가계들보다 가입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납입 확인' 행동은 고용이 불안정한 유형의 가계들이 고용이 안정된 유형의 가계들보다 이와 관련된 행동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고용불안정·소득불안정 유형에 속한 가계가 나머지 유형에 속한 가계에 비하여 각 영역별 재무관리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문항별 재무관리행동의 경우 30문항 중 18문항에서 유형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문항별로 볼때 재무관리행동을 가장 잘하고 있는 유형은 고용안정·소득안정 유형이며, 다음으로 고용불안정·소득안정, 고용안정·소득불안정 유형이다. 한편 고용불안정·소득불안정 유형의 가계는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 18문항 뿐만 아니라 나머지 문항에서도 재무관리행동 점수가 나머지 유형의 가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고용불안정·소득불안정 유형을 대상으로 한 고용 및 소득 안정대책과 재무관리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결론을 얻었다.

첫째,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중 고용불안정·소득불안정 유형에 속한 가계들은 가계소득과 자산이 조사대상 가계들의 평균보다 더 적었으며, 부채수준은 더 높고, 남편의 교육수준은 더 낮으며, 대부분 판매서비스직, 생산직에 종사하거나 무직으로 가계의 경제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가장 낮았다.

둘째, 고용불안정·소득불안정 유형에 속한 가계들은 재무관리행동 즉 소득관리행동, 세금관리행동, 지출관리행동, 투자관리행동, 부채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 수준 또한 다른 유형의 가계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그런데 가계가 주어진 자원의 제약하에서 가족원이 기대하는 생활양식을 달성하며, 생애 소비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행동이 중요하므로, 특히 자원의 제약이 심한 고용불안정·소득불안정 유형에 속한 가계들이 재무관리행동을 잘하도록 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가계는 투자관리행동을 통해서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가계의 자산을 축적하여 가계의 소득과 부를 극대화하게 된다. 그러나 하위영역별 재무관리행동 수준을 보면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가계에 있어서 투자관리와 관련된 행동수준이 나머지 영역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계는 투자관리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에 관한 정보, 지식, 태도 등과 같은 인적 자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또한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화폐, 자산 등의 경제적 자원에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무관리교육을 위한 제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계의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교육대상 가계와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재무관리교육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고용불안정성·소득불안정성 유형에 속한 가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 가계를 대상으로 소득관리행동 영역에서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며, 소득원천의 다양화를 위한 정보수집, 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교육이 요구된다. 세금관리행동 영역에서는 이들 가계가 부당한 세금을 무는 일을 줄이고 절세혜택을 높이기 위해 절세방법 이용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출관리행동 영역에서는 효율적인 지출을 위한 정보수집, 지출내용의 기록 및 평가와 관련된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투자관리행동의 경우 행동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낮았는데, 이는 투자에 이용할 경제적 자원의 부족, 투자와 관련된 지식, 능력 등의 부족, 또는 이 두가지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투자교육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불안정·소득불안정 유형에 속한 가계들이 부채이용 시기와 목적에 적절하게 부채를 이용하며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채관리행동에 관한 교육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들 가계가 위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비하도록 하는 교육 또한 요구된다.

둘째, 투자관리행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별 투자행동수준이 기타 재무영역의 행동 수준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투자관리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와 관련된 정보수집' '투자방법 및 투자목표 달성정도에 대한 계획수립' '이자율을 고려한 장단기 금융상품의 선택' '투자방법 및 투자목표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 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투자에 관한 교육에서는 우선 투자와 관련된 정보수집의 중요성과 정보수집 방법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라 가계의 화폐, 자산 등과 같은 경제적 자원과 투자에 관한 정보, 지식 등과 같은 인적 자원에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관리행동에 대한 교육을 모든 가계를 대상을 실시되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 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관리에 대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출관리행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에서 효율적인 지출을 위한 행동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출관련 정보수집' '지출내용 및 지출액의 기록' '비목별 예산의 적절성 분석' '매월 지출내용의 결산 및 평가'와 관련된 행동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와 관련된 행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모든 유형의 가계들에게 요구된다.

넷째, 부채관리행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일정수준 이상의 부채이용은 이자를 부담과 부채상환 부담으로 인해 가계에 경제적 압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부채관리행동이 요구되므로 가계의 부채관리행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출관련 정보수집 방법' '부채이용 상한선' '부채상환 결과의 주기적 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해 모든 유형의 가계, 특히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유형의 가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요구된다.

2. 고용안정 정책을 위한 제언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은 가계특성 뿐만 아니라 가계의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의 고실업 상황에서 고용불안을 많이 느끼는 가계일수록 재무관리행동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개별 가계의 고용안정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이 중요하다. 본 논문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실업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의 도움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실업자의 순으로 전체 실업자를 분류하여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집중투입함으로써 한계 실업자의 장기 실업화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고용의 불안정성이 크더라도 소득이 안정적인 가계는 고용과 소득 둘다 불안정한 가계에 비해 월평균가계소득이 유의미하게 더 높으며, 자산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 또한 더 높았으며 재정만족도 또한 더 높았다. 따라서 고

용과 소득 둘다 불안정한 가계와 고용은 불안정하나 소득은 안정된 가계를 구별하여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 심한 가계에게 우선적으로 생활안정대책과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실업자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력, 경력, 직전에 종사하던 산업과 직업에 대한 정보이외에 실업후 가계소득, 자산 및 저축규모, 실업사유, 실직시 지급받은 퇴직금, 명예퇴직 수당 등 실업자 가계에 대한 정보를 보다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지원 등 각 실업자 개인 및 가계특성에 맞는 실업대책을 마련할 때 실업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논문이 가지는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은 고용불안정성과 소득불안정성 두 차원에 근거하여 연구자의 분류기준에 의해 설정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투자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 지출관리행동, 부채관리행동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과 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김혜선·배미경(1998), 가계재무관리, 학지사
- 2) 문순민(1996), 내림에 맞는 제테크, 감영사
- 3) 문영소·윤강훈(1996), 제테크에도 왕도가 있다, 새로운 제안
- 4) 박명희·이승신·박미혜(1997), "가계재무관리

- Software 개발을 위한 연구(1),” *대안가정학회지*, 35(1), 85-98
- 5) 배희선·최현자(1996),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주부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 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및 노후준비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67-179
- 6) 안수미(1988), *자산관리과정과 부부의 역할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이기춘(1991), *가정경제학*, 교문사
- 8) _____ 외 5명(1998), *소비자재무설계론*, 학현사
- 9) 이선형(1995), *노인단독가구의 가계재정관리와 경제생활 만족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최강식·이규용(1998),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조정 실태: 1998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제11권 제2호 2/4분기, 48-61
- 11) 최영일(1990), *기대가격, 이자율 및 불확실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한국노동연구원(1998), “경제일반”,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제11권 제2호 2/4분기, 12-16
- 13) 홍향숙(1997a), “기혼여성의 재무관리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53-69
- 14) _____(1997b), “가계의 재무관리와 재무목표달성도,” *대안가정학회지*, 35(6), 157-171
- 15) 황덕순(1995),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Caplovitz D.(1979), *Making ends meet - how families cope with inflation and recession -*, Sage Library of Social Research Vol. 86, Sage Publication, Inc., Beverly Hills London
- 17) Danes, S.M. & Rettig, K.D.(1993), “The role of perception in the intention to change the family financial situa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s Issues*, 14(4), Winter, 365-389
- 18) Davis, E.P. & Weber, J.A.(1990), “Patterns and obstacles to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41-51
- 19) Fitzsimmons, V.S., Hira, T.K., Bauer, J.W., & Hafstrom, J.L.(1993), “Financial management: development of scal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s Issues*, 14(3), Fall, 257-274
- 20) Garman E.T. & Forgue, R.E.(1994), *Personal finance*, Fourth Edition, Houghton Mifflin Company
- 21) Godwin, D.D. & Koonce, J.C.(1992), “Cash flow management of low-income newlywed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 17-42
- 22) Herendeen, J. B.(1974), “The role of credit in the theory of the household,” *Journal of Consumer Affairs* 8(2), 157-181
- 23) Hira T.K.(1990), “Changes in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debt among scottish families, 1984-1987,”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4, 165-175
- 24) Scannell, E.(1990), “Dairy farm families’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35-164
- 25) Schnittgrund, K.P. & Backer, G.(1986), “Financial management of low-income urban famili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261-270
- 26) Titus, P.M., Fanslow, A.M. & Hira, T.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8
- 27) Williams, F. L., Nall, M. & Deck, P. Z.(1976), *Financial Problems of Urban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3), 185-196
- 28) Voydanoff, P.(1994), “Economic distress and families: policy issues”, *Journal of Family and Issues*, 5: 273-288
- 29) _____, P., Donnelly B. W., Fine M. A.(1988), “Economic distress and social integration, and family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9: 545-564
- 30) Winger B.J. & Frasca, R.R.(1989),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An Integrated Planning Approach*, Second Edition Merrill Publishing Company